

가금 및 가금산물 이력제 시범사업 추진 방향

Direction of Pilot Project for Poultry and Poultry Products Traceability System

최규진 (Kyu-Jin Choi)

축산물품질평가원 이력사업본부

General Department of Traceability, Korea Institute for Animal Products Quality Evaluation

가금 및 가금산물 이력제! 국민 먹거리 안전과 가금산업 발전의 근간 마련!

국내에서 철저한 방역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작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매년 발생하여 가금산업에 많은 손실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그로 인해 가금 및 가금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심리 불안으로 소비위축 및 가격변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가금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옆친데 덮친 격으로 지난해 발생한 살충제 계란 파동은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불안을 가중시킴으로써 쇠고기와 돼지고기처럼 가금(산물)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력제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속가능한 가금산업 발전대책의 일환으로 가금 및 가금산물 이력제(이하 "가금이력제") 도입 기반을 마련하였고, 2018년 하반기부터 가금이력제 시범사업을 통해 미진 사항 등을 보완하여 2019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닭(토종닭 포함), 오리와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도 이력제 대상으로 관리!

국내 가금산업은 국민소득 증가와 더불어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이 1990년 4.0kg에서 2015년 18.92kg으로 연평균 4.8%씩 증가하는 등 양적인 측면에서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선진국의 가금산물 소비량과 비교하면 향후 성장 가능성이 많은 분야이다.

국내에서도 1990년 말 이후 국내·외적으로 식품 이력관리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2000년대 이후 정부 주도로 농산물, 소 및 쇠고기, 가공식품, 돼지 및 돼지고기 관련 이력관리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렇지만

*Corresponding author: Kyu-Jin Choi
General Department of Traceability, Korea Institute for Animal Products Quality Evaluation,
21, Areumseo-gil, Sejong, 30100, Korea
Tel: +82-44-410-7090
Fax: +82-44-410-7175
Email: durami@ekape.or.kr

가금 및 가금산물에 대해서는 생산·유통·판매단계의 이력을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不在)한 실정이다. 현재 소 및 쇠고기,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관리는 모든 단계에서 의무 적용되고 있다.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의한 수입육 증가, 식품안전을 우선하는 소비 패턴 등을 고려할 때 가금이력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며, 단계별로 전산화된 이력정보에 기초하여, 방역문제가 발생 시 발생한 곳을 신속하게 통제하고 회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긴급하게 취할 수 있어, 가금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가금이력제는 규제가 아니라 사회적 편익을 제고!

가금이력제의 기본체계는 사육→도축→포장처리→판매단계의 이력정보를 기록·표시 및 신고하여 관리하는 것이다. 전국의 가금사육농장을 대상으로 사육현황조사를 실시하여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하고, 단계별로 이동할 때 농장식별번호 또는 이력번호를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가금이력제는 이행대상자에게 규제라는 사회적 인식을 최소화 하고 공공성·사회적 편익성을 높이도록 함

리적인 제도의 틀을 마련해 갈 계획이다.

우선 사육단계는 축산업 허가대상 및 등록대상 농장, 허가나 등록절차를 진행 중인 농장과 희망농장이며, 유통단계는 가금 도축업(집하장), 포장처리 유통업 및 축산물판매업 등으로 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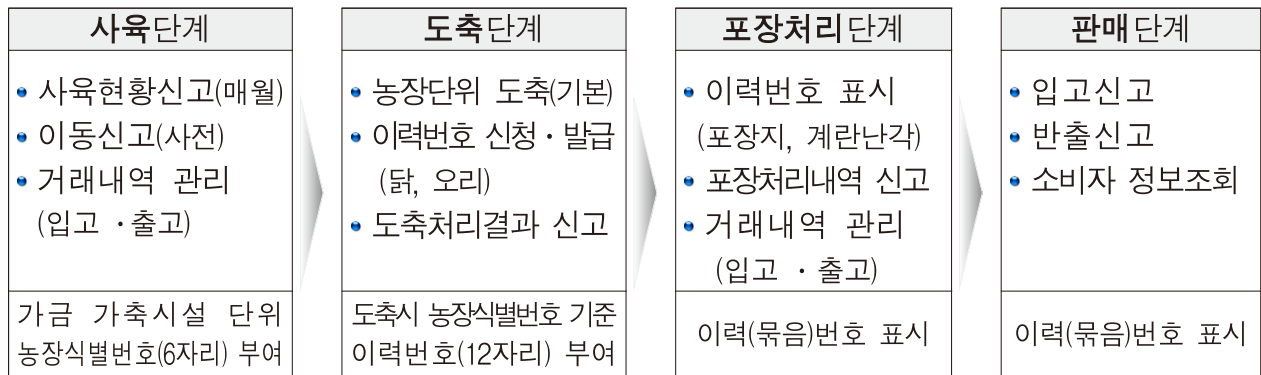
가금이력제 단계별 추진내용은 그림 1과 같다.

사육단계는 사육현황조사를 통해 가금 사육시설에 대해 농장식별번호(6자리)를 부여하고 농장정보를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게 된다.

농장경영자는 월별 사육현황을 신고하고, 가금류가 다른 농장으로 이동하는 경우, 이동일 이전에 이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금류를 거래할 때 거래내역서에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하고, 거래내역을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단, 도축 출하시는 별도 관리되므로 생략할 수 있다(이력지원실(1577-2633)로 전화, FAX, 모바일 신고 등).

도축단계는 도축장으로 출하된 가금류는 농장별로 농장식별번호를 기준으로 생성된 이력번호(12자리)를 발급받은 후 도축을 거쳐 반출시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계란을 생산한 GP농장 또는 집하장은 이력관리시스템에서 발급받은 이력번호를 난각에 표시해야 한다.

그림 1. 가금이력제 단계별 추진내용



← 생산단계 → ← 유통 단계 →



포장처리단계는 최소 포장지 및 계란의 난각에 이력번호(묶음)번호를 표시하고, 포장처리내역과 거래내역(입고와 출고)을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판매단계에서는 입고 및 반출내역 신고에 대해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소비자 대면 판매 시 이력정보가 조회될 수 있도록 해당 가금산물의 이력(묶음)번호를 정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이력정보 제공으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소비 !

가금이력제는 생산, 도축, 유통(포장, 판매) 등 단계별 이력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함으로써 문제 발생 시 이동 경로에 따라 신속한 차단과 회수 등의 조치가 가능케 하며, 또한 판매단계에서의 이력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가금이력제가 시행되면 가금 관련 산업의 위생과 안전의식 수준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매년 고병원성 조류 독감으로 인해 가금농장의 피해

가 컸고, 그로 인해 가금산물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가금이력제 실시에 따른 기대 효과로는 첫째,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및 뉴캐슬병 등 가축질병으로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한 조치를 통해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소비자에게 정확한 이력정보 제공을 통해 유통되는 가금산물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닭·오리·계란 등을 사육하는 지역, 사육환경, 도계장, 가공장 등의 이력정보가 단계별로 제공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한층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가금이력제를 통해 생성되는 빅데이터를 다양하게 활용하여 산업의 수급관리, 경영환경 개선 등 국내 가금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 조성과 농가 소득증대 향상 및 국민 안전 먹거리 제공에 지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로써 자리 매김을 기대해 본다.